

골계미가 표현된 TV 코미디 의상 연구

- <개그콘서트>를 중심으로 -

이 민 정* · 김 민 자**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The Comic Expressed Comedy Costume in TV

- Focused on <Gag Concert> -

Min-Jung Lee* · Min-Ja Kim**

Doctoral Course, Dept. of Clothing & Textiles,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7. 10. 22 투고)

ABSTRACT

Comedy costumes worn on the comedians/gag men express the information of the performances such as character's era, place, social rank, present environment, age, sex, occupation, emotion, relationships between the characters, importance and mood in visual language. The comic is found when these informations are reversed, revealed, exaggerated or distorted. To analyse the TV comedy costumes, 5 subordinate concepts of the comic which are Body, Gender, Age, T.P.O.(Time, Place, Occasion) and Role could be identified, and the results from the analysis focused on <Gag Concert> (10 shows were selected from each of the first and second half of the years from 2003 to 2007) are as follows: Distorted and ugly body implies the resistance against the ideal body. Reversed or confused sex are usually expressed as men dressed in women, and these mean breaking the dichotomy between male and female, and coexistence of the masculinity and femininity, and satirizing the social custom restricting women by moral rules. It could be recognized that the way of men's dressing in women have been changing keeping pace with the times. The discord between age and costume was often expressed with children's wear and childish props. This implies the liberation from the age role. The comic expressed from the inadequate costume for T.P.O. usually appeared with the costumes 20-30years behind the times. When there were discordance with the acts and acts expected from the outfit(appearance) also made an ironical laugh. The comics acquired by vulgarization and exagg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role(figures/occupation) were from the imitation and deformation of the objects in stereotypes, and through this dissolving the custom was under way.

Key words: the comic(골계미), TV comedy costume (TV 코미디 의상), body(몸), gender(성), age(연령), T.P.O.(시간/공간/상황), role(역할)

I. 서론

최근 TV에서 상당히 많은 인기를 끌었던 <개그콘서트>의 「골목대장 마빡이」는 대머리 분장에 유아복을 입고 이마빡을 다양한 몸짓으로 때리며 온 국민을 웃게 했던 코미디로, 대본(내용)과 배우의 연기력뿐 아니라 의상의 조형적 특징이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데 큰 몫을 하고 있다. TV 코미디 의상은 광의의 개념에 포함되는 일종의 무대의상으로, 인물(캐릭터)을 연기하는 실체인 코미디언/개그맨에게 입혀져 인물이 존재하는 시대와 장소, 사회적 위치, 현재의 환경, 연령, 성별, 직업, 인물의 감정, 등장인물 간의 관계나 극중에서의 중요도와 분위기 등 극의 정보를 시각적 언어¹⁾로 제시하며, “관객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대중적이고, 시사성이 강하며, 의상의 심미성이나 실용성보다는 표현성에 더 치중하며, 공연으로서의 형상화를 위해 개성적인 독창성과 극적 상상력을 표현”²⁾한다. 이와 같은 무대의상으로서의 특징과 더불어 코미디 의상에서는 부조화나 왜곡을 통하여 골계미를 유발시키는 특별한 조형적 특징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즐기는 텔레비전 코미디에 등장하는 의상들을 분석하여 웃음을 유발시키는 다양한 조형적 특징들을 파악하고 유형화하여 복식에 투영된 골계미를 이해하고자 한다. 또한 현대 TV 코미디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보편적 스테레오 타입들을 패러디하거나 전복하는 방법 등으로 웃음을 생성하므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생성된 ‘웃음’에는 결국 그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가치와 이데올로기를 함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대 TV 코미디 의상에 나타난 골계미를 분석하는 것은 그것들이 함의하고 있는 보편적인 사회적 가치와 이데올로기까지 함께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일반 복식 분야에서 미적 범주를 다룬 선행 연구들을 보면, 최수현³⁾은 미적 범주들로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 복식에 나타난 미의식을 연구했고, 안선경·양숙희⁴⁾는 현대 복식에 표현된 추의 개념을 연구했으며, 김민자⁵⁾⁶⁾, 최수아⁷⁾는 포스트모던 패션의 미적 범주로서의 숭고미를 제시했으며, 김윤희⁸⁾는

복식미의 중심축이 되는 범주로 숭고미와 순수미를 제시했다. 고현진⁹⁾에 의해 복식에 표현된 우미(優美, 엘레강스)가 다루어졌고, 최수현¹⁰⁾에 의해 숭고미가 고찰되었다. 유희성이나 골계미에 대한 연구는 하지수¹¹⁾에 의해 바로크시대부터 반고전주의, 낭만주의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1990년대 패션에 표현된 유희성의 내적 의미와 외적 형식이 분석된 바 있으며, 류근영·이효진¹²⁾은 1990년대 이후 만화 이미지가 표현된 복식들을 표현 유형에 따라 패러디, 인용, 브리콜라주, 데포르마시용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박옥미·송정선¹³⁾는 ‘엽기’라는 문화현상이 패션에 표현된 예를 살펴보면, 공포적 엽기와 희극적 엽기패션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밖에도 현대 패션에 표현된 그로테스크 경향과 키치 패션을 다룬 논문들에서도 골계미가 다루어진 바 있다. 코미디 관련 무대의상 연구들로는 셰익스피어나 몰리에르 등의 유명한 희극 작품의 의상 분석연구¹⁴⁾¹⁵⁾¹⁶⁾나 미국 시트콤 의상분석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¹⁷⁾ 본 연구는 미적 범주의 하나인 ‘골계미’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골계미를 일반패션이 아닌 무대의상의 일종인 TV 코미디 의상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분석 대상으로 방영 이래 꾸준히 시청률 20%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며, 웃음을 유발하는 다양한 캐릭터와 그에 수반되는 의상들이 등장하여 TV 코미디 의상의 다양한 면모를 고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KBS 2TV<개그콘서트>를 선정하였으며,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상반기, 하반기 각 1회분씩 (180회(2003.4.13), 210회(2003.11.9), 230회(2004.3.28), 260회(2004.10.25), 290회(2005.5.22), 320회(2005.12.19), 340회(2006.5.8), 360회(2006.9.24), 390회(2007.4.20), 410회(2007.9.9))의 총 10회분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003년 상반기부터 2007년 하반기까지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디지털로 재가공되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되는 <개그콘서트> VOD서비스¹⁸⁾가 2003년 상반기인 180회부터 제공되고 있기 때문이며, 180회, 210회, 230회, 260회, 290회, 320회, 340회, 360회, 390회, 410회분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예비조사로 매 10번째 방영분(180회,190회,200회...)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살펴본 결과 개그콘서트에 나오

는 거의 모든 코너들은 일주일 전의 것들을 형식적인 면에서(내지는 내용적인 면에서도) 무한 역행적으로 거의 모방하여¹⁹⁾ 매주 같거나 거의 비슷한 캐릭터와 의상들이 반복되고 있고, 상반기와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봄 개편과 가을 개편을 통해 새로운 코너들이 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비조사 시 살펴보았던 때 10번째 방영분 중 때해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분씩만을 선정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의상 분석을 위하여 연구자는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모든 코너들에 등장하는 의상들을 컴퓨터 화면에 보이는 대로 사진으로 캡처(capture)하였으며, 이 때 고찰한 의상은 인물에 착용된 머리장식, 악세사리, 장갑, 부채, 핸드백, 지팡이, 구두, 속옷, 가면은 물론 인물에 그려져서 인물을 표현하는 분장과 헤어스타일까지도 포함시키며, 의상을 착용하고 코미디언들이 취한 과장된 몸짓도 함께 살펴보았다. 이로부터 복식에서의 골계미가 어떤 조형적 특징들을 통해 생성되고 있는지를 고찰하고, 이를 유형화하여, 각 유형들의 특징적 양상과 의미들을 끌어내었다.

II. 코미디 의상과 골계미에 대한 이론적 고찰

본 장에서는 코미디 의상의 역사와 골계미에 대한 미학적 개념을 문헌에서 살펴보하고자 한다.

1. 코미디 의상의 역사

서양에서 코미디 의상의 구체적인 모습은 그리스·로마시대의 희극에서 처음 나타났는데, 일상복을 기본으로 하는 희극의 의상은 몸매의 특정 부위를 강조하여 드러냄으로써 우스꽝스러운 효과를 자아내기 위해 대체적으로 몸에 꼭 끼는 옷을 사용했다. 희극 의상만의 독특한 요소는 남근상(phallus)으로, 이것은 길이가 30cm정도이며 가죽으로 만들어져 그 안에 형질을 채워 만든 것으로 남성 배우들이 허리춤에 찬 과장된 남성 성기 장식이다. 경우에 따라 남근상을 몸속에 숨기기도 하지만 우스꽝스러운 효과를 증가시키기 위해 덜렁덜렁 드러내었다. 이러한 남근

상의 사용은 희극의 기원으로 알려진 풍요제(fertility rite)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희극의 코러스들은 종종 괴상한 인물이나 새 또는 개구리 형상의 특이한 가면을 쓰고 등장하였다.²⁰⁾ 중세 말기의 세속극에 등장하는 광대는 우스꽝스럽고 바보 같은 몸짓으로 관객들에게 폭소를 제공하지만, 그러한 연기는 실로 그 시대의 인간과 사회를 풍자하는 것이었다. 무대에서 그들은 알록달록한 의상에, 얼굴에 흰 분을 바르고 들창코를 하여 장난스럽고도 풍자적인 유희성을 표현하였다. 앤 홀랜더는 희극적 의상으로 태슬(tassel), 스켈럽 장식, 알록달록한 색채, 판탈롱의 어릿광대 의상이 대표적이며, 고대로부터 과장된 형태와 밝은 색상에 의존해왔다고 기술하고 있다.²¹⁾

현대에 이르러 세계적으로 공인된 코미디 의상과 분장이 만들어졌는데, 바로 찰리 채플린의 '떠돌이 찰리'²²⁾ 의상이다. 1914년 <메이בל의 이상한 곤경>이라는 무성영화에서 처음 착용되어 그 후 22년 동안 거의 바뀌지 않았는데, 그 의상은 어느 비오는 날 오후 남자 분장실에서 이것저것 뒤섞어 만든 것이라고 한다. 거기에서 채플린은 똥보 아버클의 험령한 바지와 꼬마 찰스 에이버리의 앙복 저고리, 너무 커서 벗겨지지 않도록 발을 바꿔 신지 않으면 안 되었던 포드 스틸링의 14 사이즈 구두, 아버클의 장인이 쓰던 너무 작은 중산모, 그리고 맥 스웨인이 쓰는 콧수염을 칫솔 크기로 다듬어서 사용했다는 것이다. 그의 착상은 작은 모자와 큰 구두, 험령한 바지와 꼭 끼는 상의 등 서로 대조를 이루는 옷가지들로 하나의 전체적 효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었다. 이러한 의상과 더불어 그의 주정뱅이를 모방한 독특한 걸음걸이는 그의 캐릭터를 더욱 확고하게 했다. 그의 의상은영국의 뮤직홀에서 전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우스꽝스러운 정도로 맞지 않는 옷, 작은 모자, 나비넥타이, 멧없는 콧수염과 흔들거리는 지팡이는 희극 배우의 필수품이나 마찬가지였다고 한다. 과거 영국 뮤직홀에서 보아왔던 희극적인 의상 및 소품들을 찰리 채플린, 자신의 영감대로 조합하여 만든 '떠돌이 찰리' 의상은 이후 "위엄에 대한 소시민의 용감하면서도 무력한 항변"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까지 지니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후기 민간에서 전승되어 온 민속극에서 코미디 의상의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 볼 수 있는데, 가면극이 그 주를 이루고 있다.²³⁾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걸쳐 그 절정에 달했던 봉산탈춤의 경우, 주로 단오 날, 사신 영접, 관아 행사시에 관아의 하층 관속, 상인, 마을 주민에 의해 공연된 것으로²⁴⁾, 과거승에 대한 풍자, 양반계급에 대한 매질, 일부다처의 삼각관계와 서민생활의 곤궁함 등을 담아내고 있다. 등장 배역들의 의상 및 가면 중 대표적인 노승과 취발이 의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목중(먹중)과 노승의 경우 안면의 주홍색 혹은 검은색 바탕에 흰 점과 홍색 점은 파리똥으로 무아無我에 빠져있는 승려들을 희극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색 대비에 의한 효과는 중의 신분으로 여색에 탐닉하는 노승의 모순을 표현한 것이라 한다. 취발이는 경제력을 지닌 신흥계급 세속인의 전형으로 여성을 잘 홀리는 인물이다. 색깔이 불그죽죽하며 코가 크고 긴 머리카락이 한 줄기 이마를 타고 내려와서 한쪽 눈을 살짝 덮고 있어 성적 매력을 강하게 노출시키고 있다. 또한 술에 잔뜩 취한 몸놀림에다가 넓은 이마의 주름은 방탕한 기질의 경력을 나타낸다. 의상은 붉은색 더거리에 금박, 은박을 찍는 등 매우 화려한 의상을 입는다.²⁵⁾ 이 당시 탈꾼들은 모두 남자였기 때문에²⁶⁾ 과장된 몸짓으로 여자 행세를 하는 남자 탈꾼들의 여장한 모습 자체만으로도 희극적이었다.

우리나라의 텔레비전 코미디의 연원이 되었다고 하는 단막극이나 막간극이 포함되어 있는 악극(樂劇)은 서양에서 찰리 채플린이 활동하던 시기인 1910년대에서 1960년대 사이에 영국의 뮤지컬 공연이나 미국의 보드빌에서 유행하던 대중 예술이 일본을 통해 수용되어 시작된 공연으로,²⁷⁾ 채플린과 막스 브러더스의 피를 이어받은 우리나라 1세대 희극 배우들인 구봉서, 배삼룡, 광규석 등은 유랑극단 출신이었다. 이 중 배삼룡은 바보 연기의 대부격으로 바지를 짝짝이로 7부 이상 걷어 올리고, 지고리 한쪽을 흘리게 입고 어기적어기적 바보스럽게 걷는 모습²⁸⁾은 그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으며, 이어 이러한 바보 캐릭터와 의상은 영구 심형래와 맹구 이창훈, 심현섭 등에 이어진다. 코미디 의상은 이와 같이 서양

과 동양에서 모두 코미디에서 웃음을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장치가 되어왔다.

2. 골계미에 대한 미학적 개념

골계(滑稽)란 재미있고 우스운 <말> 혹은 <짓>으로 웃음을 자아내는 익살스러운 성질을 말한다.²⁹⁾ 골계미는 주관적 의미의 미 개념 중 하나로 18세기에 과학이 발달되고 현실주의적, 개인주의적 성향 및 반고전주의적 풍조가 확산되어, 미를 정의하는데 있어서 순수한 미(美)가 그 범주가 확대되면서 마음속에 환기된 즐거움을 포함시키면서 생겨난 것으로, 다케우찌 도시오竹內敏雄의 『미학사전』에 의하면 골계(獨 Das Komische, 英 the comic, 佛 La comique)는 희극미라고도 하며, 기대했던 것과 실현된 것 사이의 양적 또는 질적인 모순에서 나온 미이며, 그 주관적 체험은 기대와 실현의 모순이 갑자기 의식되어 긴장하고 있던 심적 에너지가 급격히 분출될 때 생기는 쾌감이지만, 동시에 그 의외성에서 발생한 놀라움이나 환멸감 따위의 불쾌감이 주체의 정관적·유희적 태도로 극복될 때에 성립하는 미적 쾌감, 다시 말해 일종의 모순에서 나온 대조 감정이라고 정의내리고 있다.³⁰⁾

골계미는 콘(Jonas Cohn, 1869~1947)과 립스(Theodor Lipps, 1851~1914)와 같이 골계를 그 자체로는 미적이지 않은 것이라 하여 미의 양태로 보지 않는 입장도 있다. 헤겔(Georg Wilhelm Friedrich Hegel, 1770~1831), 뢰트스와(Max Dessoir, 1867~1947), 호프만(Paul Hofmann, 1880~1947)은 유머에서 미적 개념으로서의 골계를 도출해내려고 하거나 골계와 비장 사이에서 대립성을 찾기도 하였다. 이에 반하여 피셔(Friedrich Theodor von Vischer, 1807~1887)와 폴켈트(Johannes Volkelt, 1848~1930)는 골계 자체를 하나의 미적 범주로 간주하면서 유머를 그 하위 개념으로 삼았다.

골계 자체를 하나의 미적 범주로 간주한 피셔의 이론을 살펴보면, 골계를 이념에 대한 형상의 우월에 근거한 미라 정의내리며, 형상에 대한 이념의 우월에 근거한 미인 숭고에 대립시킨다. 숭고는 미의 부정이지만 골계는 숭고의 부정이므로, 말하자면 부정의 부

정이다. 승고가 객관적 승고→주관적·객관적 승고(비장)의 전개를 보이는데 대응하여, 골계도 또한 객관적 골계(das Possenhofte)→주관적 골계(기지)→절대적 골계(Humour) 순으로 발전하며, 골계의 하위개념인 유머가 승고의 하위개념인 비장에 대립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철학에서 일반적으로 객관적 골계는 대상 그 자체의 성질·형상에 의거한 골계이며, 형태의 이상성(異常性)에 의한 외모의 골계(Komik der äusseren Erscheinung), 착오적인 거동에 의거한 행위의 골계(Handlungskomik), 또 이러한 행위를 범하기 쉬운 성격 그 자체에서 기인하는 성격의 골계(Charakter Komik)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그 양태는 'das Drollige' 'das Possenhafte' 'das Burleske' 등이 나타난다. 주관적 골계는 골계 의식이 주체의 표상 과정으로 인해 생기는 것이며, 기지(Wit), 풍자(Satire), 아이러니(Irony), 유머(Humor) 등의 양태를 보인다.³¹⁾

문학 부문에서 이어령³²⁾은 일본 철학사전에 준거하여 골계를 객관적 골계, 소박성 골계, 주관적 골계로 분류하였으며, 주관적 골계의 하위 개념으로 해학, 기지, 반어, 풍자를 위치시켰다. 김동욱³³⁾은 골계를 상부개념과 하부개념으로 분류하여 상부개념인 골계를 하부개념인 wit, satire, irony, sarcasm, parody, fun, humor 등으로 분류하였으며, 작품 속에서 이러한 분류를 시도하는 것은 어렵다고 기술하였다. 조동일³⁴⁾은 스스로 깨달음에 이르는 골계를 부드러운 골계로, 지배층으로부터 주어진 생각이 자유로운 삶과 부딪칠 때 생기는 골계를 사나운 골계로 분류하고 있다. 원명수³⁵⁾는 문학 분야에 있어 기존의 견해와 그의 견해를 통합 정리하여 골계를 좁은 의미의 골계와 넓은 의미의 골계로 분류하고, 좁은 의미의 골계에 해학과 풍자를, 넓은 의미의 골계에 깨달은 자의 희극적 세계관과 민중 희극적 세계관을 위치시키고 있다. 신윤상³⁶⁾은 고전문학을 분석하여 웃음의 진원과 경향에 따라 <말> 뿐 아니라 <짓>을 분류할 수 있는 준거 틀을 제시하였다. 그는 양상을 '골계'로, 언어표현을 '재치'라는 개념으로 묶었으며, 유머는 재치와 골계가 결합된 고급 웃음으로서 높은 교양과 세련된 정서에 의해 그 내면에서 빚어져 흘러나오는

창조적 웃음이라 설명하고 있다.

문학에 있어서의 골계의 분류는 대부분 언어표현을 미적 대상으로 취하고 있으며, 객관적 골계와 주관적 골계를 구분하는 주된 차이를 '작가'로 규정하고, 주관적 골계의 모든 것은 작가의 기술에 의해 창조된 언어표현에 의해 구성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작가의 여러 가지 표현술인 해학, 기지, 반어, 풍자 등이 이에 해당되었다.

골계미에 대한 연구는 철학에서 시작되어, 문학에 주로 적용되었고, 미술·복식 분야에서도 적용되어 연구되고 있다.³⁷⁾³⁸⁾³⁹⁾ 복식에서 골계미는 원시주의를 주제로 하는 패션에서 흔히 나타나는 미적 범주로 강조, 왜곡, 그로테스크하거나 장난스러운 표현, 당대의 미의식에 위반된 형태를 통해 자기표현, 개인적 자유, 모든 권위에 대한 반란, 전통의 거부를 은유적으로 묘사한다.⁴⁰⁾

본 연구에서는 골계 자체를 하나의 미적 범주로 간주한 피셔와 폴켈트의 이론을 따라 골계를 이념보다 형상의 우월에 근거한 미로 정의하며, 그 주관적 체험을 기대와 실현의 모순 그 자체나 그 모순이 극복될 때 성립되는 미적 쾌감, 다시 말해 웃음의 유발이라 가정하였으며, 웃음 유발을 위해 의도적으로 설정된 TV 코미디 의상이라는 대상물에서 객관적 골계 중 형태의 이상성(異常性)에 의한 외모의 골계를 다음의 하위개념 틀 안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3. 코미디 의상을 분석하는 골계미의 하위 개념

코미디 의상은 인물(캐릭터)을 연기하는 실체인 코미디언/개그맨에게 입혀져 인물이 존재하는 시대와 장소, 사회적 위치, 현재의 환경, 연령, 성별, 직업, 인물의 감정, 등장인물 간의 관계나 극중에서의 중요도와 분위기 등 극의 정보를 시각적 언어로 제시하고 있으며, 골계미는 위의 정보들이 반전/폭로/과장/왜곡될 때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코미디 의상을 분석하는 골계미의 하위 개념들로 몸, 성, 연령, T.P.O., 역할로 크게 나누어볼 수 있으며, 이 개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몸

몸은 복식의 중요한 표현대상이며 개개의 시대나 문화권, 개인이나 집단에 따라 몸에 대한 미의식의 반영은 복식의 형태를 결정하며, 또한 몸에 대한 이상미의 변화는 복식의 변화를 가져온다.⁴¹⁾ 몸에 대한 이상적인 미란 문화적 맥락 내에서 이해 가능하며, 복식 자체의 구조적인 형으로 인체에 대한 이상미를 변화시키기도 하며, 인체 부위에 직접적으로 변형을 가하여 이상미를 추구하기도 한다. TV 코미디에서는 몸과 관련하여 몸에 대한 이상미에 역행하는 형태로 웃음을 생산하고 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2) 성

성의 개념은 생물학적인 성이라기보다는 사회문화적 개념으로서의 남성과 여성을 말한다. 복식은 전통적으로 대부분의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도구로서 남녀의 성차에 의한 복식형태에 뚜렷한 차이를 보여 왔다. TV 코미디에서는 성과 관련하여 여장남자의 형태나 혼돈된 성을 나타냄으로써 웃음을 생산하고 있다.

3) 연령

연령에 따라 사회에서 기대되는 의복이 다르며, 그 기준은 각 사회나 문화권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다. 연령에 적합한 복식은 단순히 신체 변화에 의한 사이즈뿐만 아니라 사용되는 색상, 품목, 형태, 노출 정도 등에도 차이가 있다. TV 코미디에서는 복식을 통해 신체적 연령이나 정신(심리적)연령을 높이거나 낮추어 웃음을 유발시킨다.

4) T.P.O.: 시간, 공간, 상황

시간(Time), 공간(Place), 상황(Occasion)을 의미하는 T.P.O.는 복식의 기능적 혹은 실용적 목적 측면에서 논의되는 개념으로 그 옷이 착용되는 때와 장소, 상황에 따른 적합한 의복의 기준이 존재한다는 가정을 내포한다. 하지만 G. Lipovetsky가 『패션의 제국』에서 언급했듯이 오늘날 패션은 고정관념에서 탈피되어 지난 100년간의 패션을 지배한 균일한 명

령식 매커니즘 대신 유희적인 논리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⁴²⁾ TV 코미디에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의상의 착용이라든지, 장소와 상황에 적합하지 않는 의상을 착용하여 복식이 지니고 있는 통념적 T.P.O.를 유희적인 논리로 전복시키고, 왜곡시키며 웃음을 유발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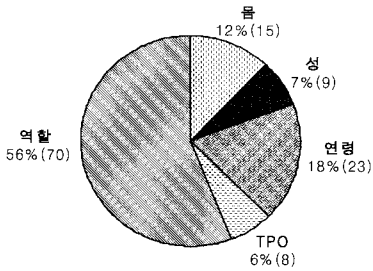
5) 역할

역할이란 개인의 직업 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의미한다. 착용자의 역할에 따라 적합한 의복의 종류와 형태가 있고, 의복이 적합할 때 의복과 착용자가 서로 조화를 이루게 된다. 역할에 따른 적합한 의복의 기준은 문화권에 따라 다르며, 시대에 따라 변화한다. 의복에 의한 역할 표시에는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이 있다. 직접적인 방법으로는 제복이나 배지의 착용, 또는 특정 집단을 표시하는 의복의 착용 등을 들 수 있다. 제복은 타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 전달 할 뿐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자신의 역할을 재확인시켜 이에 맞는 행동을 하도록 심리적으로 작용하며, 동일한 제복을 입는 집단 구성원들끼리의 유대감과 소속감을 강화시키기도 한다. 간접적인 표시 방법은 역할에 따른 고정관념에 동조함으로써 역할을 표시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문화에 동화하며 살기 때문에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그 사회에서 기대하는 의복의 형태를 따라서 입게 된다. 즉 사람들은 자신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유사한 차림을 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재확인과 더불어 타인으로부터의 인정을 추구하게 된다.⁴³⁾ 교수, 정치인, 고시생들은 각기 그들 나름대로의 고정 관념화된 외모를 갖고 있다. TV 코미디에서는 이러한 고정 관념화된 역할에 따른 외모를 유희적으로 강조하거나 모방하거나 비틀어 웃음을 발생시키고 있다.

Ⅲ. TV 코미디 의상의 골계미 분석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총 10회분의 <개그콘서트>에 나타난 코미디 의상들 중 객관적 골계미가 표현된 의상에 한정하여 몸, 성, 연령, T.P.O. 역할이라는

하위 개념 틀로 고찰하였다. 하나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다양한 개념들이 조합되어 하나의 코믹한 의상이 탄생하고 있었다. 본 논문에서 고찰한 <개그콘서트>의 코너들은 <표 1>로 정리하였으며, 하위개념 별 빈도44)는 <그림 1>로 도표화하였다.



<그림 1> <개그콘서트> 코미디 의상에 나타난 골계미의 하위개념

1. 몸

대머리 어른이 아이의 옷을 입고, 이마뺨을 때리고 있는 설정, 2006년 하반기 대한민국 전 국민을 웃긴 <골목대장 마뺨이>의 의상이다. 원래 설정이 아이가 대머리인건지, 대머리 어른이 아이 옷을 입고 있는 상황인지는 확실하지는 않으나, 코너명을 고려해볼 때 전자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360회<마뺨이>의 의상은 ‘몸의 기형화’와 ‘연령의 부조화’라는 기제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그림 2> 320회<사랑의 가족>이라는 코너에서도 인체를 왜곡시켜서 웃음을 자아낸다. 팍 끼는 수영 모자를 쓸 때 얼굴 피부가 위로 치켜 올려져서 웃긴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다. 이를 코미디 의상에 응용한 사례이다. 못생긴 딸45)과 아들, 아버지가 노란 수영모자와 하얀 목욕가운을 입고 등장하는 이 코너는 하얀 목욕가운과 노란 수영모자라는 일상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의상 설정으로 기존관념에서 이탈하고 있으며, 노란 수영모자가 얼굴 피부를 뺀 눈이 더욱 찢어지게 만들어 못생긴 얼굴을 더욱 추하게 만드는 인체 왜곡으로 더욱 웃음을 증폭시키고 있다. 360회<패션7080>에서 압구정 패션을 잘 알고 있다고 외치는 오춘이(오지현)는 ‘동안 성형’이 유행이라고 해서

‘전도연 이마성형’을 했다고 하며 불뚝 튀어나온 이마를 관객에게 보여주면서 직접적인 인체 왜곡을 통해 웃음을 주고 있다. <봉숭아학당>의 대신맨(양배추), <개그전사300>의 근육 쫄쫄이 의상에서도 골계미를 느낄 수 있다. 마르거나 뚱뚱해서 보기에 근육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이 근육들이 그려져 있는 쫄쫄이 의상을 입고 있는 모습은 실제의 몸과 그려진 몸에서 일어나는 모순, 그려진 몸에 의한 실제 몸의 왜곡, 부조화 때문에 웃음이 발생한다.46)

인체의 왜곡이 이와 같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부조화한 의상으로 인하여 인체가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340회<고음불가>의 음치 메인 보컬 의상은 땅에 질질 끌리며, 장발도 주체 못한다. 이런 ‘땅에 질질 끌리는 의상’과 장발은 음치 이수근의 키 작음(短身)을 더욱 부각시켜 웃음을 유발시킨다. 410회<키졌으면>의상도 이에 해당한다. 짧은 다리를 더욱 강조하는 7부 청바지에 반부츠, 길이가 긴 반짝이 자켓, 긴 머리는 단신(短身)이라는 주제로 연기를 펼치는 두 명의 단신 개그맨들을 더욱 익살스럽게 보이게 한다. 360회<패션7080>에서 홍춘이가 어깨에 각이 세워지고, 길이는 땅바닥까지 오는 트렌치코트를 입은 모습은 옷 안의 인체를 기형적으로 보이게끔 하여 웃음을 준다.<그림 3>

인체를 왜곡시키지 않고도, 열등한 인체를 그대로 노출시켜도 웃음을 유발된다. 360회<패션7080>의 빨간 내복이나 ‘캣츠’ 의상을 착용했을 때 웃음을 유발하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개그맨들의 ‘열등한 인체’를 그대로 노출시킴으로써, 그들이 부끄러워하는 것을 보고, 우월감이 느껴져 웃음이 유발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기제를 사용한 것으로 360회 <네박자>에서는 위로 머리를 땀 베풀처럼 세우거나, 머리카락을 머리에 달라붙히고 가운데에 고볼고볼하게 말려있는 애교머리를 내려뜨린 정상적이지 않아 보이는 인물 두 명이 레슬링 의상을 입고, 젖꼭지에 반창고를 붙인 채 에피소드 중간에 등장하여 “마징가마징가~”를 외쳐댄다. 그들의 머리 스타일이나 옷으로 ‘추’와 ‘열등함’을 드러내며, 반복적인 이상한 노래와 행동을 곁들여 웃음을 자아내게 한다.<그림 4>



<그림 2> [몸] 몸의 기형화 <마빠이> 얼빠이



<그림 3> [몸] 의상에 의해 왜곡된 몸 <패션7080> 홍춘이



<그림 4> [몸] 열등한 몸의 노출 <네박자>

2. 성(性)

180회<유치개그> 에피소드들 사이에 갑자기 다양한 캐릭터로 튀어나오는 김기수는 할머니 분장에 짧은 북한 예술단 의상(짧은 통치마에 저고리)을 입고 방정맞게 춤을 춘다. 할머니와 짧은 통치마 저고리는 연령의 부조화를 연출하고 있으며, 이에 남성이 이를 연기해 더욱 웃음이 증폭된다. 290회<아리아리>에서 두 명의 잘생긴 개그맨들이 연기하는 황당한 에피소드들 사이에 정종철이 부조화스런 의상을 입고 등장하여 “아리아리”에 맞추어 춤을 춘다. 이 때 의상은 발레복에 가채, 분홍색 플라스틱 알 목걸이에 흰색 운동화이다. 상식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복식 아이템들의 착용 모습이 여장남자라는 성의 왜곡이라는 기제에 첨가되어 더욱 웃음이 증폭된다.

<집으로>는 영화<집으로>의 패러디이며, 시골 할머니와 서울에서 온 손자라는 설정은 닮아있다. 여기서 할머니 역할을 남성(김준호)이 담당하고 있다. 그는 비둘기 색 치마저고리나 저고리와 몸빼를 착용하고 있으며, 머리에는 쪽을 짓고 있다. 320회에서 갑자기 “할머니, 이 레드카펫은 뭐야?”라는 손자의 말에 할머니가 의상을 벗어 던지자, 과도한 노출로 세간에 화제가 되었던 유명한 여가수 의상이 입혀져 있으며, 할머니가 음악에 맞추어 섹시한 춤을 춘다. 할머니라는 캐릭터는 여성성이 부족하여 남자 코미디언이 그 역할을 맡아도 부조화함이 덜해 골재미가 잘 느껴지지 않았던 반면, 급작스런 ‘유명 여가수 의상 패러디’를 통해 ‘반전’이라는 웃음의 기제를 사용하여 웃음을 발생시켰다.

한편, 360회<오빠>에서 변기수는 “오빠~오빠오빠오빠”를 외치며 T.P.O.에 맞지 않는 옷(예를 들어 공사판에서 일하는 의상을 사려고 온 손님에게 턱시도를 권하고, 턱시도에 어울리는 장갑이라고 하며 빨강색 코팅되어있는 목장갑을 사은품으로 주는 등)을 강제로 판매하는 “동대문에서 제일 싼 집” 옷매장 여성 직원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때 변기수는 머리를 감고 수건으로 머리를 감싼 형태의 머리 수건을 머리에 두르고, 큰 브로치를 꼰았으며, 목에는 빨강 바탕에 흰 물방울무늬가 커다랗게 있는 스카프를, 열은 무지개 색상의 소매 없는 니트에, 바지는 주황색과 흰색 가로 줄무늬의 무릎까지 오는 반바지를 입고, 흰 운동화를 신고, 허리에는 전대를, 어깨에는 기능을 알 수 없는 검은 긴 끈을 가방 배듯이 매고 있다. 이와 같은 여장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방식으로 보통 치마를 입고, 가슴에 빵을 넣은 일반적인 여장 전형을 탈피하여 그만의 여장방식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어 390회, 410회<까다로운 변선생>에서도 남자인지 여자인지 확실하지 않은 ‘변선생’ 역할을 맡고 있는데, 머리는 단발머리 가발에, 초록색 리본 핀을 꼰고, 목에는 위로 솟는 스카프를 하고 있으며, 앞단 부분이 분홍색 테이프포 장식 되어있는 흰 와이셔츠에 왼쪽 가슴에는 크고 붉은 꽃 코사지를 하고 있으며, 바지는 주름이 없는 밝은 회색 바지로 몸에 꼭 낀다. 그는 남성이지만, 여성적 취향을 가지고 있는 “까다로운”선생 역할을 옷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그림 5>

390, 410회〈내 이름은 안상순〉에서 안상순(안상태)은 커다란 곰인형을 들고 등장하며, 긴 생머리에 분홍 머리띠를 하고, 분홍색 원피스나 가디건과 롱스커트를 입어 단아하고, 양전하고, 내숭떠는 공주 같은 여성역할을 맡았다. 하지만 이러한 의상에서 과격하고, 험한 입담(예: “너 조용히 안 해? 너 쳐추빠 순서 바뀐다. 너 죽어 너, 진짜”)과 마른 남성(한민관)을 계속해서 별명으로 깎아 내리는 언어의 폭력으로 웃음을 유발시킨다. 여기에서 웃음의 장치는 ‘여장남자’라는 기제와 함께 양전하고 여성스러운 것이라는 ‘공주스러운 여성 의상’에 대한 기대심이 무너지는 데에서 발생된 웃음이다.

현대 코미디에서 여장남자들은 단순히 가슴에 빵 넣고, 립스틱 바르고, 스타킹에 하이힐을 신은 전통적인 여장이 아닌, 다양한 기제들이 조합되거나, 새로운 여장 방식을 채택하여 더욱 더 부조화스럽고 모순된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3. 연령

프로이드는 위트 혹은 유머를 ‘유아기의 놀이적 마음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어른의 해방감’이라 정의했다.⁴⁷⁾ 유아기의 놀이적 마음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장치가 ‘유치한 의상’이다. 〈집으로〉의 대구와 〈봉숭아학당〉의 시득이는 모두 초록색 츄리닝 바지를 한쪽 또는 양쪽 모두 걷어 올렸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상의로는 대구는 런닝 셔츠에 ‘대구’라는 이름이 쓰여진 천 이름표를 붙이고 있고, 시득이는 사이즈가 작아서 배가 살짝 나와 있는 겨자색 티셔츠를 입고, 한쪽 손에는 과자 봉지를 들었다. 두 명 모두 약간 장발이며, 특히 대구는 호섭이⁴⁸⁾ 가발을 썼으며, 코 밑에 콧볼이나 우유 마신 자국 등을 연상시키는 하얀 칠을 했다. 그들은 어른의 몸을 하고, 아직 정신은 성장하지 못한 아이큐 50정도의 지능아 역할을 맡고 있다. ‘대구’란 이름은 그 역을 맡은 개그맨인 ‘김대희’의 이름과 바보‘영구’를 조합해서 만든 이름으로 보인다. 〈집으로〉의 윤성호는 멜빵을 거꾸로 착용하고, 새마을 모자를 쓰고, 무릎까지 오는 바지를 입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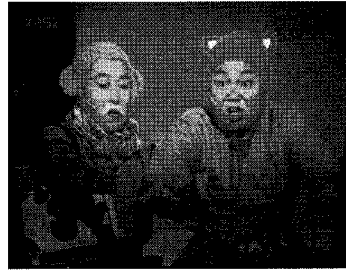
봉구와 땡구, 혁필이, 호구와 울봉이는 모두 “호섭

이 머리”를 하고 있고, 코 밑에는 흰색 칠을 했으며, 볼에는 붉은색 볼터치를 하고 있다. 봉구와 땡구, 혁필이의 상의는 역시 몸에 밀착되는 줄무늬 셔츠를 착용하고 있으며, 바지는 츄리닝을 착용했으며, 유아스런 옷과 신발, 소품들을 착용하고 있다. 호구와 울봉이는 의상은 교복을 착용하고 있지만, 유치한 바보의 분장을 하고 있어, 그들이 일종의 학식과 관련된 개그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바보’스러운 답에 도달할 것이라는 암시를 한다.

290회〈봉숭아 학당〉의 출산드라(김현숙)는 “자연분만, 모유수유, 똥똥” 등을 외치며, 밥상 위에 올려진 ‘조기’를 의인화하여, 조기선생님의 끈기에 대해 사이버 교주와 같은 강연방식으로 역설한다. 그녀는 토끼 머리띠, 토끼 슬리퍼, 붉은 볼터치, 캔디 머리에 고려시대 화려한 장군 배자에 소매 넓은 흰 포, 빨간 한복 치마를 입었다. 자칫 무속인이나 사이버 교주를 연상시켜 무거운 캐릭터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을 유아소품들로 코믹하게 표현하여, 교주스럽지만 귀여운 캐릭터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다. 390회〈불청객들〉의 정종철과 김병만은 영화 또는 드라마 제작 현장에 찾아온 구경꾼이며, 불청객들이다. 이 코너의 의상의 발전은 220회〈불청객〉이라는 코너가 김병만이 혼자 제작현장에 휘방꾼으로 등장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 220회 불청객은 실제에 가까운 의상을 착용하였다. 노숙자 느낌의 무채색 의상, 특히 거무튀튀한 의상을 입고, 휘방을 놓는 모습은 가히 방해꾼 이상의 어떤 웃음도 제공하지 못했다. 하지만, 390회〈불청객들〉〈그림 6〉에서 불청객들은 유치한 의상(머리에는 크로쉐 개구리 곰 모자, 코 밑에는 바보 입을 의미하는 흰색 칠, 천사 날개가 달려있는 연보라 츄리닝과 꽃무늬 몸뚱이, 숫자가 쓰여진 키치적인 유아스런 가방들, 밝은 주황색과 카키색의 점퍼차림)으로 무장하고 관객 앞에 등장한다. 이러한 ‘유치’라는 방어막 때문에 그들이 제작현장에서 눈의 가시 같은 존재들이며, 사사건건 중요한 일에 휘방을 하지만 미워할 수 없는 캐릭터가 되고 말았다. 이것은 관객들이 그 의상을 통해 ‘유아기의 놀이적 마음상태’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유아스런 의상 외에도 180회〈유치개그〉에서 할머니 분장



〈그림 5〉 [성] 남성성과 여성성의 공존 <까다로운 변선생> 변선생



〈그림 6〉 [연령] 유아복, 유아소품의 착용 <불청객들>

에 짧은 북한 예술단 의상(짧은 통치마에 저고리)을 입고 갑자기 등장해 방정맞게 춤을 추는 장면에서도 연령의 부조화를 발견할 수 있다.

4. T.P.O. : 시간, 공간, 상황

T.P.O.의 부조화 중에 TV 코미디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법이 '시대에 뒤떨어진 의상의 착용'이다. 베르그송은 많은 것들이 이론적으로는 회귀적이면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관습적으로 계속 사용됨으로써 그 사물 속에 깃든 회귀적 효력이 완화되어 버린 탓이며, 회귀적 효력이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유행과의 갑작스런 단절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Laver는 같은 복식 스타일이라 해도 유행되기 10년 전에는 외설적이며, 1년 전에는 대담하며, 유행 중에는 멋있으며, 1년 후에는 단정치 못하며, 10년 후에는 추하며, 유행의 20년 후에는 우스우며, 50년 후에는 색다르며, 70년 후에는 매혹적이며, 150년 후에는 아름답다고 하였다.⁴⁹⁾ 본 연구에서 '시대에 뒤떨어짐'을 기제로 하여 웃음을 준 캐릭터들은 모두 20~30년 전인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유행하였던 2:8 가르마, 배바지, 빨간 내복, 장발, 굵은 넥타이 등의 패션 소재를 사용하여 골계미를 유발시키고 있어 위의 이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짧고 굵은 줄무늬 넥타이, 2:8 가르마를 포마드로 붙여 넘기고, 머리카락 끝은 살짝 말려있으며, 1970,80년대 유행하던 스타일과 색상의 양복을 콤비로 입고, 어병하게 말을 하고 있다. 290회<마테 홈쇼핑>에서 물건을 설명하러 나온 쇼 호스트로 등장하는 '안어병'의 의상

으로 2000년대 '바보 의상'이라 할 수 있다.<그림 7> 그의 의상은 260회<깜빡 홈쇼핑>에서 보여주었던 안어병의 의상에서 좀 더 발전된 것으로, 그의 짧고 굵은 줄무늬 넥타이는 당시 사회자였던 '김깜빡'의 넥타이 형태와 같다. 그는 어병하지만, 완전한 바보는 아니다. 그는 기발한 아이디어로 홈쇼핑 상품에서 정상인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눈빛이라든가 장단지라든가 '안어병만의 (성적)매력'을 나타내며 물건을 팔고 있다. 360회 <법죄의 재구성>에서는 국립과학수사원 '이박사'가 등장하는데, 무대에 걸어 나올 때부터 "바보 바보 바보야~"라는 노래가 흘러나오으로써 그가 바보라는 것을 암시한다. 그가 바보스럽다는 것은 옷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는데, 흰 셔츠에 굵은 넥타이를 하고 있고, 그 위에 실험 가운을 입고, 길이가 발목 위까지 올라가는 검은색 배바지 안에 가운을 넣어 입었다. 그는 전통적 착용방법을 위반하고 있다. 머리는 2:8 가르마로 붙여 넘기고, 보라색 집게 핀을 머리에 꽂았으며, 흰색 양말에 백색 구두를 신고 있다. 그는 여러 시대에 뒤떨어진 배바지, 백구두, 굵은 넥타이, 2:8 가르마 등의 아이템들을 조합하여 하나의 '바보'캐릭터를 탄생시키고 있다. 360회<비굴한 거리> 조폭 중 한 명(조수원 분)은 2:8 가르마에 머리를 붙여 넘기고, 집게 핀으로 꽂고, 발목 위 길이의 검은 바지에 흰색 구두를 신고, 눈썹은 가늘게 그렸다. 또한 410회<내 인생에 내기 걸었네>의 형사(김원효 분)도 2:8 가르마에 스프레이로 붙여 넘긴 머리 형태를 하고 있어 그들도 바보의 일종임을 암시하고 있다. <패션 7080>



〈그림 7〉 [TPO] 시대에 뒤떨어진 의상착용으로 우매표현 <마태홍소핑> 안어빙(우)



〈그림 8〉 [TPO]시대에 뒤떨어진 의상착용 <봉숭아학당> 복학생



〈그림 9〉 [TPO]상황과 의상의 부조화 <나쁜녀석들>

의 빨간 내복은 인체를 그대로 드러내고, 여성적이라는 인식이 있어서도 웃긴 의상이 되지만, 그 이전에 빨간 내복은 추억의 속옷이며, 사실은 '촌스럽기' 때문에 웃긴 것이며, <유치개그>에서 정형돈이 빨간 양말에 7부 밝은 파랑색 바지, 장발, 고무신이란 외모를 갖고 있지 않다면 웃음이라는 효과가 감소했을 것이며, <봉숭아 학당>의 복학생은 "내 밑으로 다 조용히 했!"이라는 과거 군부독재시절에 사용했을 법한 명령어를 사용하며, "체크 셔츠, 빨간 머플러, 장발, 칭 반바지, 고무신, 무릎까지 오는 긴 양말"로 촌스러움이라는 기제를 적절히 사용하여 웃음을 유발했다.〈그림 8〉

장소와 상황에 부적합한 의상으로 골계미를 유발시키는 경우로는 390회<착한 녀석들>(그림 9)에서 검은색 바지에 셔츠, 검은 멜빵에 머리 스타일과 얼굴 생김새는 갓 출소한 것 같은 범 죄자 형인데, "우리는 착한 녀석들입니다"라고 이야기 할 때, 410회 <천사들의 합창>에서 사무실 안의 양복에 넥타이 차림의 회사원들이 초등학교 교실에서나 나올법한 유치한 내용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을 때, 360회<고교천왕>에서 "우리가 바로 주먹 하나로 고등학교를 제패한 고교천왕이야"라고 하며 70년대 고등학교 교복 상의의 단추를 푸르고, 절렁한 자세로 서 있는 고교천왕(김준호)이 복성부원이자 선도부원(김대범)이 "너희 아무것도 아니자나?"하고 욕박지르자 "그래도 너무 아무것도 아니진 않아."라고 하며 비굴한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의상에서 기대되어졌던 모습과 실체가 다르기 때문에 의상 자체가 우스꽝스럽지 않

아도 의상이 우스워져 보이며 웃게 된다. 이때의 아이러니는 복식에서 기대했던 것과 실현된 것 사이의 양적인 또는 질적인 모순에서 비롯된 것이다.

5. 역할

권위적인 인물 또는 존경의 대상인 학자의 결함을 폭로하고 의외로 하찮은 존재였다고 생각하게 만들도록 복식을 표현하여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경우(풍자)와 골계로 느끼지 않았던 모든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사람 또는 동물이나, 사람들의 직업에 관련된 복식을 과장되게 비속화하여 흉내 내어 표현한 경우(모방/우의)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봉숭아 학당>의 옥장군(그림 10)과 노통장은 각각 드라마 <제5공화국>전두환 대통령과 현 노무현 대통령을 패러디한 캐릭터로 옥장군의 의상은 가짜 계급장과 훈장이 가득 달린 육군대장 제복으로 노통장의 의상은 근색 양복과 과장되게 큰 '사랑의 열매' 뺨지로 표현하였다. 320회<발명왕>, 210회<외길 30년>, <대단해요>, 320회<제3세계>, 390회<명인>, 410회 <집중토론>에서는 모두 전문가 또는 지식인이 등장하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전문가들은 모두 어처구니 없거나 실패하거나, 어병한 캐릭터들이며, 이런 것을 표현하는 장치로 <발명왕>의 경우 물음표가 잔뜩 찍혀있는 실험복 가운데 나비 넥타이를 착용하고 있거나, <외길 30년>의 경우 가운데 가르마에 눈 주변에는 다크 서클이 가득하고, 고지식하고, 현대 세계과는 동떨어져있다는 느낌을 받게 하는 생활 한복을



〈그림 10〉 [역할] 고정 관념화된 인물(전두환 전 대통령) 비속화 <봉숭아학당>



〈그림 11〉 [역할] 고정 관념화된 직업(교수) 비속화 <집중토론>



〈그림 12〉 [역할] 고정 관념화된 동물 우의 <누렁이>

입고 이상한 자세(학다리나 베롱 자세)를 취하고 있거나, <대단해요>에서 선생님 역할을 맡았던 김인석은 “자기한테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지.”하면서 양복을 벗는데, 양복 안에 여성의 탱크톱을 입고, 거드랑이에 긴 털을 붙여서 손을 높이 들어 흔드는 장면이 등장하며, <제3세계>의 육봉달 총장은 대머리, 장발이며, 앞의 큰 인형 소품을 통해 그가 유지한 행동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며, 개 조련사인 <명인>은 무대 뒤에서 영국에서 수입해 온 사냥개를 조련하다가 운명해서 의상을 볼 수 없거나, <집중토론>의 ‘박성광 교수’는 몸에 맞지 않는 약간 큰 듯한 촌스러운 자켓에 붉은 리본을 목에 동여매고, 머리는 ‘영구’ 또는 ‘호섭이’ 머리 스타일을 하고 있다.〈그림 11〉

텔레비전 코미디에서 모방(패러디) 하는 대상은 대부분 원래의 의미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의미를 위반하는 형태로 존재한다. <노량진 블루스>의 고시원생 혁필은 ‘우매’한 고시원생 역할로, 이에 웃음을 주기 위한 과장된 분장(앞나가 빠져있다든지, 눈가에 다크 서클이 가득하며, 머리는 안감은 지 오래된 형상)를 사용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고시원에 오래 있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사회적인 기대 양식을 조금 더 과장되게 표현했기 때문에 웃음을 주고 있다. 다양한 캐릭터들(<봉숭아 학당>의 골든병, 댄서킴, 유치아노 빠박로티, 권이은, 송승현, 허필버그, 웅박, 로타리킴, 콕커 히말라야, 북한사람 민관이, 계순이, 아저씨, 자장면 배달원, 노마진, 전국1등, 봉서니, 반장, 기자, 경비아저씨, 강주희와 중국에서 온 친구)은 대부분 모방이자 비속화이다. 전형적

동물들이 등장한 경우에는 340회<동물원>의 토끼, 나무늘보, 반달곰, 사자, 410회<누렁이>(그림 12)가 있는데, <동물원>에서의 동물들은 토끼가 대장이고, 반달곰, 사자가 토끼의 부하이며, 나무늘보는 느림보 역할로 설정되어, 동물 의상 안에서 아이러니한 설정이 부가되어 웃음을 준다. <누렁이>에서 누렁이는 사회적 약자, 버려진 자, 하대되는 자를 암시하며, 누렁이가 주인에게 버려지는 모습을 보는 관객들은 그렇게 하대되고 버려지는 누렁이에 대한 연민과 동정심이 이는 동시에, 그의 희극적 의상과 연기 및 대사에 의해 웃음이 유발되고 있다.

IV. TV 코미디 의상에 나타난 골계미의 특성

텔레비전 코미디는 전통양식, 기존관념, 가족관계, 사회관계 등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규칙의 위반이나 규범의 일탈을 통해 대중적이면서도 즉물적인 웃음을 제공한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개그콘서트>에 등장한 현대 코미디 의상의 고찰 결과, 이러한 웃음을 일으키거나 증폭시키는 장치 역할을 하는 무대 의상으로서 텔레비전 코미디 의상은 이러한 위반이나 일탈을 통해 ‘인물을 대상화하는 웃음’을 유발시키고 있었다.

1. 몸의 왜곡

부조화한 의상과 분장으로 몸을 기형화시키거나

<표 1> 본 논문에서 고찰한 <개그콘서트>의 코너들

<개그콘서트>코너명		(회)	<개그콘서트>코너명		(회)
1	1950	320	52	사랑의 카운셀러	340
2	4인 4색	210,230	53	사선에서	290
3	9시 언저리 뉴스	180,210,230	54	사오정 친구들	260
4	갈갈이 삼형제	180	55	삼인삼색	410
5	간기도	390	56	수능 박선생	290
6	개그 J특공대	230	57	식신 김도마	210
7	개그대국	230,260	58	진동작그만	260
8	개그두뇌 트레이닝	390	59	싸이코	360
9	개그전사300	390	60	아리아리	290
10	결인의 추억	210	61	애정의 조건	290
11	고교천왕	360	62	어머니의 이름으로	260
12	고음불가	340	63	연인	360
13	공부합시다	180	64	오빠	360
14	공포의 외인구단	320	65	우왓스	410
15	국민상담관리공단	210	66	외길 30년 I,2	210
16	까다로운 변신생	390,410	67	우격다짐	180
17	깜빡 홈쇼핑	260	68	우리 병만이 달라졌어요	410
18	꽃보다 아름다워	260	69	우리들은 새쌍둥이다	180
19	나비효과	290	70	우버 삼남매	180
20	내 인생에 내기 걸었네	410	71	유치개그	180
21	내 이름은 안산순	390,410	72	이태원 밴드	290
22	네박자	360	73	인터뷰	340
23	노래교실 살리고	290	74	작전명명1,2	180
24	노랑진 블루스	390	75	장군	320
25	누구?	320	76	장난하나	290
26	누렁이	410	77	절대고수	290
27	뉴스단신	260	78	제3세계	320
28	대결 3인조	210	79	주먹이 운다	290
29	대단해요	210,230,260	80	지역광고	410
30	대화가 필요해	390,410	81	집으로	260,320,340
31	도레미 트리오	180,210,230	82	집중토론	410
32	동물원	340	83	잔잔	210
33	마테 홈쇼핑	290	84	착한사람만 보여요	340
34	마빠이	360	85	착한녀석들	390
35	명인	390	86	천사들의 합창	410
36	무림남녀	180	87	출주는 대수사선	260
37	무사들의 대화	180	88	총무로	210,230
38	문화 살롱	320,340	89	키웠으면	410
39	문지마 커플	180	90	타락토비	230
40	뮤지컬	360	91	타이즈와 쫄쫄이	180
41	뮤직 드라마	210,230	92	특종 나불나불	290
42	미션 임파서블	180	93	패션7080	360
43	미스터리 개그	230	94	하류인생	290,320
44	박준형의 생활사투리	180,210	95	헬스보이	410
45	발명왕	320	96	현대생활백수	320,340
46	범죄의 재구성	340,360	97	호구와 올붙이	360
47	보디가드	230	98	B.O.A	340
48	복두신권	340	99	Go Go 예술속으로	320
49	불청객들	390	100	My girl	260
50	비굴한 거리	360	101	Voice Talk	210
51	사랑의 가족	320	102~	출산드라,세바스찬,육동자 등 봉숭아	
			146	학당 캐릭터 45개	총 10회분

변형시켜 즐거움을 주는 골계미의 기저에 '이상화된 몸' 개념이 존재한다. 특히, 인체를 부조화하게 만드는 의상에서 나타나는 골계미는 공적인 공간에서 우리가 의상을 착용함으로써 얻으려고 하는 이상적인 미에 대한 저항의식이 담겨있는 것으로, 의상의 착용을 통해 신체의 단점을 드러내고, 불완전한 인체로 만든다. 김민자⁵⁰⁾는 이상적 몸을 표현하려는 오늘날

의 패션에 대해 완벽한 몸에 대한 숭배는 편집증과 노이로제의 지경까지 이루는 경우가 빈번하며, 이미 몸은 의학 자본과 미용 산업에 의해 난도질당하는 변형의 실험장이 되었고, 몸이 가지는 추상적 가치로서 젊음과 날씬함은 이 시대 모든 이들이 선망하는 잣대로서 몸 자체가 소비의 대상으로 상품화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상화된 몸과 패션을 이상시하는 사회 경향을 풍자한 <패션7080>에서는 압구정과 청담동 토박이라 자칭하는 시대에 뒤떨어지고, 매우 부조화한 의상을 착용한 개그맨들이 등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사회에 일침을 놓는다. “기본 좋다고 막상 이용하지 말고, 느낌 갖고 호호 갖고 땀 흘릴 때 그 때 상경하란 말이야.” 이들은 ‘추(못생김, 똥똥함, 인체의 부조화)’의 모습을 오히려 아름답거나 멋있는 모습이라 자화자찬하거나 서로를 칭찬해주거나 드러냄으로써 웃음을 자아낸다. 하지만, 이러한 왜곡된 인체의 대중매체에서의 노출은 오히려 그 역작용으로, 이상적이지 않은 몸매의 적대적 관념을 형성시켜 사회통념에 부합되는 몸을 요구하게끔 하기도 한다.

2. 성의 반전

성을 반전시키거나 혼란시켜 골계미가 발생한 경우는 모두 ‘여장남자’의 사례들이었다. 2003년 이전 <개그콘서트>에서 ‘여장’ 차림의 남자가 등장하여 인기를 누렸던 코너는 2002년 <봉숭아학당>이라는 코너의 “황 마담”역이었다. 키 180cm의 전혀 여성스럽지 않은 남성이 여성의 긴 드레스를 입고, 뽕 브라를 하고, 머리는 긴 갈색 곱슬머리 가발에, 화장하고 나와 “귀엽지, 반했지, 사랑스럽지~”라고 애교스러운 말투로 말하는 모습에 웃지 않을 수 없었다. 어울리지 않을 듯한 남성의 몸에 여성의 의상을 입히고, 섹시함을 강조함으로써 부조화가 컸던 만큼 웃음도 더 컸었다. 하지만, 이 코너에서도 단순히 ‘여장남자’라는 기계만으로 웃음을 준 것은 아니었다. “황 마담”은 갑자기 가발을 벗어던지며, 원래 남성의 목소리를 내며 자신이 남자였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반전을 꾀한다. 이 시기는 트랜스젠더 하리수의 등장 시기였던 2002년과 시기를 같이 한다. 그녀의 대중매체를 통한 빈번한 노출은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유교적인 성 관념을 상당부분 벗겨내고, 여장남자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는 데 기여한 면이 있다. 이에 성 전환된 캐릭터의 등장에 시청자나 관객들은 거부감을 느끼지 않게 되었으며, 오히려 호의적이며 웃음을 선사하는 이미지로 비추어졌으며, 더 이상 전통적인 방법의 성 반전으로는 획기적인 웃음을 선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이러한 전통적 여장 캐릭터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고, 부조화한 의상을 갖추어 입은 남장여자가 막간에 잠깐 튀어 나와서 웃음을 주는 정도였으며(예: <유치개그> <아리아리> <집으로>), 할머니, 웨이트리스, 에어로빅 강사, 가상 공간 캐릭터(제니퍼) 역할로 여장한 남자 개그맨들이 등장했으나, 이들 캐릭터는 ‘남성’과 ‘여성’의 강한 대립이 빚어내는 부조화가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상 자체로 많은 웃음을 주기에는 역부족이었던 면이 있다.

2006년 하반기에 등장한 <오빠>라는 코너의 동대문 시장 옷가게 점원의 의상이었던 머리 수건, 반바지, 무지개 빛 소매 없는 티셔츠는 ‘여장’이라고 하기에 무리가 있어보였다. 하지만 그가 “오빠~오빠오빠~”라고 외쳤기 때문에 여자라고 생각되었으며, 이렇게 알 수 없는 모호한 성 정체성을 의상으로 표현함으로써 새로운 여장남자의 모습이 선보인다. 이어지는 <까다로운 변신생>에도 비슷한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성격과 악세사리 등이 여성 취향이지만, 그가 남성인지 여성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요즘 사회의 모호한 성적정체성을 반영한 의상으로 보이며, 이분법적인 성 관념을 탈피하여 남성성과 여성성의 공존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인다. 2007년 상반기에 다시 전통적 여장방식이 채택되는데, 이는 <내 이름은 안상순>의 ‘안상순’이며, 여기에서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이분법적 구도의 강한 대비라기보다는 여장남자 안상순의 내면에 숨겨진 공격적 성향을 통해 여성에 대한 도덕적 기준들로 여성의 삶을 엄격하게 얽매어온 사회적 관습을 통쾌하게 풍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연령의 부조화

연령에 맞지 않는 유치한 의상과 분장에서 비롯되는 즐거움은 주로 유아복과 유아소품의 착용으로 이루어지며, 바보스러운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자, 불청객이나 사이비교주 등의 무거운 캐릭터를 관객들이 쉽게 수용할 수 있게 해주는 방어수단으로 사용된다. 바보스러운 캐릭터에서와 무거운 캐릭터에서의 유아복과 유아소품은 그 캐릭터의 정신적 연령이 미성숙 되었음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관객들은 유

아기의 놀이적 마음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의상으로 인하여 연령 역할에서의 해방감이 생성되기 때문에, 열등한 존재가 어떠한 탈선되고 일탈된 행동을 하더라도 묵인할 수 있으며, 그러한 해방감으로부터 웃음이 유발된다.

4. T.P.O.의 위반

T.P.O.를 위반하는 의상에서 비롯되는 즐거움의 사례들은 주로 시대에 뒤떨어진 의상 착용의 경우가 많았는데, 1970, 80년대의 20여 년 전 의상에서 느낄 수 있으며, 이는 시청자가 인지하고 있는 현 시대의 패션코드와의 부조화 때문이다. 시대에 뒤떨어진 의상은 “시청자를 포함한 그 사회 성원들이 익히 알고 있는 의상의 관습과 약호를 모르고 있다”⁵¹⁾는 것을 상징하며, 이 때문에 그들이 범하는 실수는 용인되며, 시청자들에게 우월감을 느끼게 해주어 웃음이 생성되는 것이다. 또한 아도르노는 대량문화 사회에서 유행을 따른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처방된 유행을 따라 말하지 못하는 사람, 즉, 대량문화의 공식이나 관습, 판단들을 아무런 노력 없이 제 것인 양 재생산하여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은 그 존재조차 위협받으며, 바보가 아니면 지식인일 것이

라고 의심받는다고 지적한다.⁵²⁾ TV 코미디 의상에 나타난 비하된 지식인이나 바보의 의상을 살펴보면, 이와 같이 시대에 뒤떨어진 의상을 착용하여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반면, 역기능으로 시대에 뒤떨어진 의상에 대한 적대적 관념의 형성은 현 시대의 패션 코드에 부종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5. 역할의 과장, 모방, 비속화

고정관념 속의 인물이나 직업의 특성을 비속화시키거나 과장되게 표현한 의상에서 나타나는 즐거움은 수용자가 이미 알고 있는 익숙한 대상의 의상을 변형하여 표현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열등하다고는 볼 수 없는 이들은 당대의 보편적이고 만연한 인물 또는 동물이며, 이들이 ‘고정관념’이라는 단순화된 틀로 파악하여 그들의 의상을 흉내 낸다. 코미디에서 흉내 내어지는 대상은 이미 채택된 고정관념이며, 이러한 고정관념이 모방되어지는 동시에 변형이 가해지고, 이러한 변형을 통해 관습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다. 코미디에서 흉내내기, 과장, 풍자 등의 다양한 양식으로 표현하는 그 준거를 공유하지 않는 수용자는 결코 코미디에 대해 즉각적인 감정적 반응을 나타내 보일 수가 없으며, 코미디를 보고 사람들

〈표 2〉 현대 코미디 의상에 나타난 골계미

별 주	형 식 의 상	의 미
몸	몸을 열등하거나 기형적이거나 부조화스럽게 만드는 의상	이상적인 몸 또는 몸의 상품화에 대한 저항의식/ 기형적 몸에 대한 적대적 관념을 형성시켜 사회통념에 부합되는 몸 요구
성	여장남자, 양성적 의상	이분법적인 성 관념 탈피/ 억압된 성역할에서의 해방/ 남성성과 여성성의 공존
연령	유아복, 유아소품 착용, 연령에 맞지 않는 의상착용	유아적 유희쾌감의 표현/ 연령 역할에서의 해방
T.P.O.	시대에 뒤떨어진 의상착용, 장소나 상황에 맞지 않는 의상착용	상황에 따른 고정관념의 거부
역할	고정관념속의 인물이나 직업의 특성을 비속화시키거나 과장되게 표현한 의상	인물을 비속화시키거나 열등하게 만들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우월감을 느끼게 함

아이러니

풍자

폭로

반전

전복

과장

모방

비속화

부조화

부조리

왜곡

우의

골계미

웃음을

자아냄

이 웃는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그들이 이미 그 사회의 보편적인 규범이나 기대 양식에 대해서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텔레비전 코미디에서 이러한 풍자와 모방이란 기제를 사용하는 이유는 그것이 비판받아 마땅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한다면 단순히 재미있고 우스울 것 같기 때문이며, 텔레비전 코미디는 그것에 대한 새로운 대안적 의미를 부여하지도 않은 채, 오히려 그 의미를 해체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모방과 풍자는 “의미 없는” 흉내 내기와 비속화에 지나지 않는다.⁵³⁾

위의 내용을 <표 2>에서 정리하였다.

V. 결론

현대 TV 코미디 의상에서 시청자들의 웃음을 유발시키기 위해 다양한 개념을 통해 표현된 골계미는 현대 대중 소비사회가 지니고 있는 인간의 삶의 모순과 갈등이 의상을 착안하고 착용한 주체의 정관적·유희적 태도로 극복되어 일탈이나 왜곡을 통해 비유적으로 표현되고 있었으며, 몸, 성, 연령, T.P.O., 역할의 다섯 가지 하위 개념들로 코미디 의상을 분석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형적이거나 부조화한 몸에 나타난 골계미에는 이상적인 미에 대한 저항의식이 담겨있었으며, 이러한 기형적 몸에 대한 적대적 관념을 형성시켜 사회 통념에 부합되는 몸이 요구되어지고 있었다. 성의 반전 또는 왜곡을 통해 표현한 골계미는 여장남자의 형태로 표현되었으며, 이는 기존의 이분법적인 성 관념을 탈피하여 남성성과 여성성의 공존의 의미를 내포하며, 여성에 대한 도덕적 기준들로 여성의 삶을 엄격하게 엄매어온 사회적 관습을 풍자하고 있었다. 또한 시대별로 여장남자의 의상 코드가 변화하고 있는 것도 인지할 수 있었다. 연령의 부조화를 통해 표현된 골계미는 유아복과 유아적 소품의 사용으로 표현되었으며, 이에는 연령 역할에서의 해방감이 작용하였다. T.P.O.에 부적합한 의상을 통해 표현된 골계미는 주로 시대에 뒤떨어진 의상 착용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현재로부터 20여 년 전인 1970, 80년대의 패션 코드가 표현되었으며, 이는 현재 패션코드와의 부조화를 통해 골계미를 유발

하고 있었다. 특정 상황에서 의상에서 기대되어지는 행동과 실제 행동이 맞지 않았을 때에도 아이러니에 의한 골계가 생성되었다. 인물이나 직업의 특성을 비속화시키거나 과장되게 표현한 의상을 통해 표현된 골계미는 모두 채택된 대상의 고정관념의 모방과 변형으로 표현되었으며, 이를 통해 관습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고찰한 <개그콘서트>에 등장한 현대 코미디 의상들에는 다양한 개념들이 함께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하나의 개념으로서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에 이어 코미디 바보의상의 역사, 여장남자 의상에 대한 복식사적인 접근과 다른 방송사 코미디 프로그램과의 비교, 다른 장르의 코미디에 나타난 코미디 의상의 연구, 실제 희극적 연극 및 뮤지컬 의상에 나타난 골계미 연구, 서양 코미디 의상과의 비교를 통한 비교문화학적 연구 등이 필요함을 느낄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한국인이 즐기고 좋아하는 코미디 의상의 특징을 좀 더 확실하게 밝힐 수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 그것들이 함의하고 있는 보편적인 사회적 가치와 이데올로기까지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1) Gassner, J. (1949). *Producting the play*. New York: Dryden, p. 118.
- 2) 김유경 (2002). 무대의상에 나타난 그로테스크 이미지 연구-1990년 이후 무대의상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21.
- 3) 최수현 (1994). 복식의 미적범주: 르네상스·바로크 복식에 적용하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 안선경·양숙희 (1995). 현대 복식에 표현된 추의 개념. *한국의류학회지*, 19(2).
- 5) 김민자 (1998). 20세기 패션에 나타난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연구 I. *복식*, 37, pp. 103-118.
- 6) 김민자 (1998). 20세기 패션에 나타난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연구 II. *복식*, 38, pp. 369-392.
- 7) 최수아 (2003). 패션에 나타난 퓨전 현상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8) 김윤희 (1998). 현대 한국적 복식에 나타난 인체와 복식에 대한 미의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9) 고현진 (2003). 복식에 표현된 엘레강스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0) 최수현 (2003). 복식에 표현된 송고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1) 하지수 (1994). 현대 패션에 표현되는 유희성. 복식, 22.
- 12) 류근영 · 이효진 (2002). 만화 이미지가 표현된 후기산업사회 복식의 해학. 복식, 52(8).
- 13) 박옥미 · 송정선 (2004). 현대패션에 나타난 엽기현상-국내 패션디자이너의 작품을 중심으로-. 복식, 54(2).
- 14) 이영숙 (2001). Moliere의 희극에 나타난 의상 Imagery에 관한 연구. 服飾文化研究, 9(3).
- 15) 이영숙 · 김미혜 (1991). Shakespeare의 喜劇에 나타난 衣裳 imagery에 대한 研究. 論文集, 28.
- 16) 이영숙 (2000). Moliere의 희극에 나타난 의상 이미지에 관한 연구. 응용과학연구, 9(1).
- 17) 조현정 · 간호섭 (2002). 미국 시트콤에 나타난 Life Style과 Fashion Style에 관한 연구. 디자인포럼21, 5. <http://www.conpia.com>
- 19) 이재윤 (2006). 의사소통이론에 기반한 유머 텍스트의 분석 - 개그콘서트를 중심으로. 독어교육, 35, p. 126.
- 20) Wilson, E., & Goldfarb, A. (2006). *Living Theater* (3rd ed.). Boston: McGraw-Hill. pp. 52-53.
- 21) 최수현. 앞의 책, p. 24.
- 22) Robinson, D. (2002). 거장의 생애와 예술 채플린 (한기찬, 역). 서울: 한길아트. (원서 1994년 발행), pp. 196-198.
- 23) 이재윤 (2001). 한국 민속극의 복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 1.
- 24) 村山智順 (1936)에 의하면 봉산탈에 사용되고 있는 의상과 가면은 상당히 조잡하고 그로테스크하게 만들어진 것이어서 이 장면을 본 일이 없는 사람이면 혹시 이를 보고서 원시적이고 유치하다고 멸시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러한 멸시는 인식 부족의 소치다. 이는 밤중의 연출에 효과가 크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하였다라는 자료가 있을 뿐이다. 당시에는 공연 후 탈, 의상 등 제도구를 태운다고 하였다. (이재윤. 앞의 책, p. 16.)
- 25) 임혜경 (1982). 가면극에 나타난 해학의 상징적 조형화 연구-봉산탈춤에 등장하는 가면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도예학과 석사학위논문, p. 14.
- 26) "탈꾼들은 모두 남자로 그 지방 하급관리(吏屬)로서 그 연기가 세습되어 왔으나 1920년대에 들어오면서 기생조합이 생긴 후로 남자 기생들이 상좌와 소무를 맡게 되고, 또 탈 대신 얼굴 자랑으로 탈을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위의 책, p. 11.)
- 27) 김호연 (2003). 한국 근대 악극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pp. 6-8.
- 28) 라온 (2007,7,4). 靑<올다 웃다 80년> 3. 배삼룡. 자료 검색일 2007,10,15. <http://blog.naver.com/woori0903/150019618733>
- 29) 골계(滑稽)란 용어는 중국 한나라 시대 史家인 사마천의 『史記』〈滑稽列傳〉에 등장한다. 〈골계열전〉에는 왕이나 황제를 말로써 일깨우는 재치 있는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齊의 순우곤淳于髡, 초楚의 우맹優孟, 진秦의 우전優旃이 그들이다.
- 30) 안영길 외 (2003). 미학 예술학 사전. 중판. 서울: 미진사, p. 279.
- 31) '기지'는 통상 무관심하거나 배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사상을 의외의 측면에서 갑자기 서로 연결시켜서 교묘하게 표현하는 특색이 있는 지적 요소가 강한 골계이고, '풍자'는 그것이 신랄한 조소나 비난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합리한 사상에 대한 예리한 공격성을 갖는 경우가 많다. '아이러니'(반어)는 본래 소크라테스적 문답법에서 유래하는 역설적 수사법의 내용인데, 긍정·부정의 상호 침투적 성격과 야유적 기분이 결합된 일종의 기지적 표현을 통해 감추어진 표현 내용 - 저의 - 을 나타내는 것인데, 풍자만큼 예리한 공격성을 갖지 못하며 또한 유머와 같은 우월적 타애성도 없다. 아이러니가 철학적 세계관으로까지 높여져서 하나의 미학 사상이로서 발전했던 것이 '낭만적 아이러니'이다. (안영길 외. 위의 책, p. 280.)
- 32) 이어령 (1958). 諧謔의 미적 범주. 사상계, 6(11).
- 33) 김동욱 (1970). 韓國文學에 있어서의 諧謔. 월간문학, p. 226.
- 34) 조동일 (1971). 韓國文學에 있어서의 滑稽. 國語國文學, 51. pp. 118-120.
- 35) 원명수 (1998). 滑稽의 概念과 體系에 대한 考察-戲曲을 中心으로-. 韓國學論集, 25, pp. 8-11.
- 36) 신윤상 (1980). 한국인의 웃음. 서울: 태창문화사, pp. 273-302.
- 37) 안휘준 (1987). 한국풍속화의 발견: 한국의 미. 서울: 중앙일보사.
- 38) 손연희 (1988). 조선후기 풍속화에 나타난 해학성에 관한 연구. 효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9) 조은정 (1996). 조선조 후기 풍속화에 나타난 골게미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0) 김민자 (2004a). 복식미학 강의1 복식미를 보는 시각. 서울: 교문사, p. 216.
- 41) 김민자 (2004b). 복식미학 강의2 복식미 옛보기. 서울: 교문사, p. 12.
- 42) 최수아. 위의 책, p. 58.
- 43) 이은영 (1996). 복식 의장학. 서울: 교문사, pp. 79-81.
- 44) 개념별 빈도 측정은 객관적 골게미가 표현된 의상을 착용한 캐릭터에 한정하였으며, 한 캐릭터에 하나 이상의 개념이 사용되었을 경우에 그 중 골게미를 가장 크게 유발시키는 개념을 포함시켰으며, 동일한 캐릭터의 반복일 경우에는 서로 다른 시점에서 방송된 의상이므로 둘 다 포함하여 수량화하였다.
- 45) 정종철은 여자임을 나타내는 분홍색 조화가 붙은 노란 수영모를 쓰고 나와 '성의 왜곡'이라는 기제도 같이 사용되고 있다.
- 46) 라스베가스 시르크 드 솔레이유(Cirque de Soleil) 쇼 입구에서 있는 근육질의 남성이 착용한 근육이 그려진 줄줄이 의상은 그의 몸을 더욱 멋있게 보이게끔 하였다.
- 47) 하지수. 앞의 책, p. 73.
- 48) 1989년에 방영한 MBC 주말 드라마 "행복한 여자"에서 이덕화의 극중 형 역할인 '호섭이'의 머리 스타일. 호섭이는 머리가 좀 모자라는 바보 역할로 극중에서 냉면사발을 머리에 얹고 그릇 밑으로 나온 부분만 가위로 깎아서 바가지를 뒤집어 쓴 것 같은 머리스타

일을 하고 등장했다.

- 49) 하지수. 앞의 책, p. 76.
- 50) 김민자 (2004b). 앞의 책, p. 56, pp. 90-92.
- 51) 손병우 (2002). 풍자 바깥의 즐거움-텔레비전 코미디.
서울: 도서출판 한나래, p. 59.
- 52) Story, J. (1999). 문화연구와 문화이론 (박 모, 역).
서울: 현실문화연구. (원서 1993년 발행), p. 153.
- 53) 박근서 (2006). 텔레비전 코미디와 담론의 문화정치.
파주: 한국학술정보(주), p. 106.